

단풍처럼 물들어가고 싶다면...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 부안 내소사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눈이들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꽃이 떨어지면 아무도 주위하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 중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의 일구이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올 가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인 문장이다. 붉은 잎들이 거리와 숲을 물들일 때 스님의 문장 또한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하나로 한 계절을 무사히 날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다. 이 가을에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산사의 마당에서 물든 단풍은 또 어떻게. 이제 가을도 끝나간다. 아쉬운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직 단풍을 볼 들고 있는 산사가 있었다. 내소사다.

내소사 가는 길

절에 가는 ‘길’은 절마다 시작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짧게는 일주문에서부터 ‘가는 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차를 놓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길로 칠 수도 있고, 길게는 아예 처음 출발부터 ‘가는 길’로 논 수 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소사 가는 길’은 어디에서부터일까. 서쪽 바다 앞에 선 만경강 위로 겨울 채비를 한 철새들이 떼 지어 날고, 철새들의 몸짓과 몸짓 사이로 텅 빈 김제 벌판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단풍을 보러 가는 길이라면 ‘내소사 가는 길’은 이때부터다. 차가워진 만경강, 더 이상 날 곳이 없는 철새들의 하늘, 그 하늘에서 한 계절을 끝낸 철새, 허공이 되어버린 들관, 모두 ‘잘 물든 단풍’의 다른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며 설법을 기다리듯 다른 이름의 ‘단풍’들과 만나는 이때부터가 내소사로 가는 길이다.

커다란 풍경들을 빠져나와 작은 풍경으로 접어들면 바위 봉우리가 우뚝한 산세가 드러나고 ‘능가산 내소사’라고 쓰인 일주문 앞에 서게 된다. 다음은 전나무 숲길이다. 송풍회우(松風檜雨), 사월신록(四月新綠), 동기백화(冬期百花)로 표현되는 내소사 전나무 숲길은 변산8경 중의 하나이다. 전나무 숲길 끝에는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있고, 그 끝에는 천왕문이다. 사천왕의 허락이 떨어지면 홍엽을 매달고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다. 그 뒤로 봉래루가 보이고 그 뒤로 대웅전이다.



노렇게 물든 내소사 마당의 단풍나무가 단청 없이 가을햇살 속에 핀 대웅전 꽃문살을 바라보고 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대웅전의 빛바랜 꽃문살이 가을 햇살에 걸려 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듯이 단청 없이 가을 햇살에 물든 연꽃이 연못 속의 연꽃보다 아름답다. 아득한 옛날, ‘전설’이 되어버린 시절, 대웅전을 지을 목수는 행자의 장난으로 목침 하나를 잃고 포(包) 하나가 모자란 법당을 지었다. 법당에 단청을 들이던 작은 새는 미혹한 중생 탓으로 단청을 마치지 못하고 사라졌고, 목수는 꽃문살을 깎아 법당문을 해 달고 떠났다. 내소사의 법당은 전설로 지어진 법당이다. 아득한 그 시절은 증명할 수 없으나 시절만은 분명히 존재했던 시절이다. 내소사 대웅전(보물 291)은 1633년(조선 인조 11) 청민 스님 때 지었는데, 조선 중기 사찰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봄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단풍처럼, 정확한 역사 속에 남은 기록보다 증명할 수 없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대목이다. 전설 속의 꽃문살에 기대서면 아득한 시절의 그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많은 손들이 꽃문살을 스치고, 많은 시선들이 문살 위에 머물다 간다. 아득한 그 시절을 이렇게 눈앞에서 스치고 볼 수 있음은 아득한 그 시절이 그토록 멀기만 한 시절은 아닌 듯하다.

아득한 시절의 손을 놓고 도량 이곳저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곳곳이 단풍이다. 천왕문을 바라보고 있는 노란 단풍, 오솔길을 걷고 있는 붉은 단풍, 종각 위에 걸린 반홍의 늦은 단풍. 가을의 끝자락이어서인지 벌써 잎을 많이 털어낸 나무들도 있고, 자리에 따라 아직도 물들어 가고 있는 단풍들도 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소래사였던 내소사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혜구 두타 스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원력을 세우고 창건했다. 처음에는 소래사(蘇來寺)였다. 창건 당시에는 대소래사

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지금남아 있는 내소사는 소소래사이다.

1633년 청민 스님의 대웅전 불사 후 1865년(고종 2)에 관해 스님이 중수하고 만해 스님이 중수한 뒤, 1983년 혜산 스님이 중창하여 현재의 가람을 이루었다. 선계사, 실상사, 청림사와 함께 변산의 4대 명찰로 꼽혔으나 다른 절들은 전란에 모두 소실됐다. 능가산 봉우리에 둘러싸인 내소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법당 불단 후불벽면에 모신 백의관음보살좌상과 영산회괘불탱(보물 1268), 고려동종(보물 227호)이 걸린 범종각과 봉래루, 설선당, 삼층석탑이 있다. 내소사의 유래에 관하여, 일설에는 중국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내소’라 했다고도 하나 이는 와전된 것이며, 원래는 ‘소래사’였음이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고, 이규보의 <남행일기>에도 ‘소래사’라 했는데, 소래사가 언제 내소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다. 부속암자로는 천령암, 지장암이 있다. 일주문에서 천왕문에 이르는 약 600미터의 전나무 숲길이 유명하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내소사

법륜 스님의 문장을 조금 더 빌린다. “봄에는 산과

물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트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스러져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라고 한다. 쉽지 않은 일은 아니다. 봄꽃보다 아름답게 잘 물드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나’를 ‘차분히’ 바라보는 일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소사에 가면 꽃문살에 핀 빛바랜 연꽃이 연못 속의 연꽃보다 아름답게 피어 있고, 아득하지만 분명히 역사보다 아름다운 전설이 있고, 봄꽃보다 아름답게 잘 물든 단풍이 도량을 물들이고 있다. 단풍처럼 물들어가고 싶다면, 물들어 가는 ‘나’를 ‘차분히’ 바라보고 싶다면 내소사 단풍을 보고 올 일이다.

부안 내소사=박재완 기자



내소사 대웅전



단청 없이 가을햇살에 물든 대웅전 꽃문살

주변보기

<사찰>

▲개암사 / 부안군 삼서면 감교리
백제 무왕 35년(634)에 모련 대사가 세웠다. 개암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282년 변한의 문왕이 진한과 마한의 공격을 피해 이곳에 성을 쌓을 때, 우(禹)장군과 진(陳)의 두 장군으로 하여금 좌우 계곡에 왕궁의 전각을 짓게 하였는데 동쪽을 묘암, 서쪽을 개암이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월명암 /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96-1
692년(통일신라, 신문왕 12) 부설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진독대사(震默大師)가 중건했다.

▲채석강 / 부안군 변산반도 서쪽에 있는 해식절벽과 바닷가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됐다. 면적 12만 7372㎡이다. 바닷물에 침식되어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하다. 주변의 백사장, 맑은 물과 어울려 풍치가 더할 나위 없다. 채석강이라는 이름은 중국 당의 이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물에 뜬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채석강과 흡사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적벽강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다. 후박나무 군락(천연기념물 123)이 있는 연안으로부터 용두산(龍頭山)을 돌아 절벽과 암반으로 펼쳐지는 해안선 약 2km, 291,042㎡를 적벽강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적벽강만큼 경치가 뛰어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소(갯길) / 아마존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
아마존이나 지중해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 채석강과 곰소 갯벌을 꼭지점으로 하는 곰소만(줄포만)의 갯벌이다.

<숙박>

- 대명리조트가족호텔 51 / 063-580-8800
- 모항해나루가족호텔 / 063-580-0700
- 채석강리조트 / 063-583-1234
- 한옥펜션 나비의꿈 / 011-9282-7651

<식당>

- 산촌식당 / 063-581-8877 / 터덕정식
- 가람식당 / 063-583-2806 / 청국장
- 전주식당 / 063-584-9090 / 바지락전

since 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우리도 연꽃같이

상호인쇄

행복한 가을

상호인쇄

상호인쇄

상호인쇄

상호인쇄

상호인쇄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25.8cm × 26.5cm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부 @600원
- 100부 @800원
- 규격: 9.5cm × 13.4cm
- 매수: 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부 @400원
- 100부 @600원
- 규격: 8.9cm × 9.5cm
- 매수: 16장